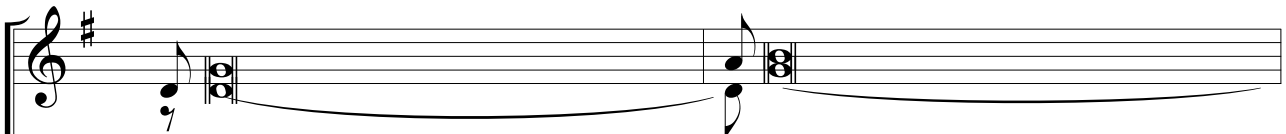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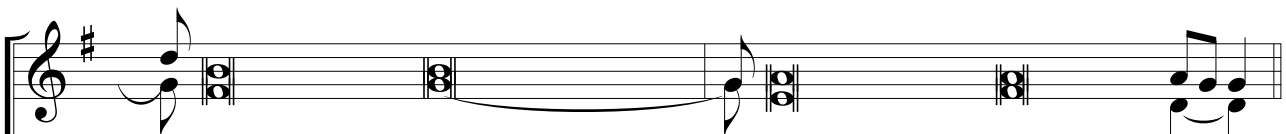
시편 137(136), 1-2. 3. 4-5. 6



(후렴)내가 너를 생각하지않는다 면, 내 혀가입천장에 달라붙으리 라.



1.바 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	시 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.
2.우 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	압 제자들이 흥을 돋우라
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.	올려대는구나.
3.우 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	주 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?
4.내 가 만일 예루살렘	너 를 생각하지 않는다면,



그 언덕	버드나무 가지에	우 리의 비파를	걸었	노- 라.
"시온의 노래를	불러라.	우 리에게 한가락 불러	보아라."	
예루살렘아,	너를 잊는다면	내 오른손이	굳어 버리	리- 라.
너를 가장	삼지 않는다면	내 혀가	달라붙으	리- 라.
큰 기쁨으로		입천장에		

